재생개념을 적용한 전시디자인 사례

The exhibition design cases applied with the concept of regeneration

임은영* / Yim, Eun-Young

Abstract

Environmental matters are one of key issues of today's world. At this point, advanced countries are proposing and planning various kinds of policie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Space designers in those countries are more concerned with regeneration or slow development than development and innovation. As the new government of Korea was started in 2008, it announced 'design Korea project' as key agenda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t seems that they are focusing on development of new town than the concept of preservation or regeneration on which most advanced countries put their bases. In these regards, this research starts with the idea that environmental factor in space design is very important and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human survival. With this idea, the researching team created experimental space titled 'regeneration' as one of eco-friendly education program. The team aimed at building up or 'designing one man space-one to one ratio' in deserted place with recycled stuffs. With the idea of 'regeneration' in space, the researcher aims at awakening the sense of environment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in daily living.

키워드: 재생, 지속가능성, 공간디자인

Keywords: Regeneration, Sustainability, Space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본 연구는 한세대학교 친환경디자인 특성화 교육사업의 일 환으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친환경디자 인 교육개발에 의한 공간디자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서 '재생 (regenera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재생은 단순히 공간을 새롭게 꾸미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나리모델링(remodeling), 리폼(reform)과는 구별된다. 재생을 통한공간디자인 방법은 공간의 상실된 기능이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여 공간의 주체에게 돌려줌으로서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디자인 교과개발에 따른 프로젝트의 전개를 통하여 재생개념을 적용한 공간디자인의 가능성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1.2. 프로젝트 개요 및 전개방법

(1) 프로젝트 개요

전 시 명: 제로원 스페이스(Zero Won Space)

* 정회원, 한세대학교 공간환경디자인전공 조교수

전시장소: 한세대학교 디자인관

전시일시: 2007. 12. 26 - 2008. 03. 31 전시규모: 디자인갤러리 앞 공터 (약 4평)

(2) 프로젝트 전개방법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명과 같이 일대일 스케일의 1인용 정주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일체의 건축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폐자재 또는 버려지기 아까운 일상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공간을 재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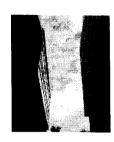
제로원 스페이스의 대상지는 한세대학교 디자인관 주변, 외지거나 방치된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다음, 대상지 분석과 함께 공간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폐자재를 수집하고, 폐자재의본래 기능 및 조형적 특징을 살려 창의적인 가공과 함께 1인이정주할 수 있는 제로원 스페이스를 디자인하였다.

2. 디자인 계획

(1) 대상지 선정

본 전시공간의 대상지는 두 개의 동일한 형태로 된 건물 사이의 저층부 필로티 부분이다. 본 건물군은 지반의 높낮이가다른 관계로 파사드에서는 2층, 그리고 후면에서는 1층으로부

터 각각의 층이 시작된다. 따라서 본 전시공간은 소외된 공간 에 1인을 위한 정주공간인 'Zero Won Space' 디자인이 목표이 므로 인적이 드물고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물군 후면의 1층 필로티 부분을 대상지로 하였다.<그림 1>





<그림 1> 제로원 스페이스 대상지로서 건물 저층부 필로티 부분

(2) 디자인 모티브

전시공간의 디자인 모티브는 '재생'이라는 디자인 주제에 따 라 버려지는 오브제를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전시는 아파트 단지나 이사철에 주택가에서 흔히 수집할 수 있는 '버 려진 수납장'을 디자인 모티브로 상정하였다.<그림 2>





<그림 2> 디자인 모티브로서 버려진 수납가구

(3) 디자인 원리

디자인 원리는 드룩 디자인(droog design)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브제 '쌓기(heap up)'이다. 각기 다른 스케일과 용 도를 지닌 직각형태의 수납공간을 쌓아올려서 1인을 위한 공간 볼륨으로 확장하도록 하였다.<그림 3>





<그림 3> '쌓기'에 의한 드룩 디자인의 사례

(4) 전시공간 디자인

선택한 디자인 오브제로서 수납공간은 대부분 전면에서 개 폐되는 특징을 지닌다. 수납공간이 열리는 방법은 크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서랍형식과 한 쪽에 경첩이 있어서 다른 한 쪽으로 열게 되는 문갑형식, 그리고 칸만 나누어져 있는 책꽂이형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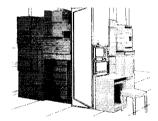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대상공간은 한 면은 이미 유리벽으로 마감되 어 있으므로 하나의 기둥을 포함하는 'ㄷ'자형 배치를 해야 하 는 조건이었다. 이미 한 면의 유리벽을 통하여 실내가 경우에 따라 들여다보이는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 공간이므로 총체 적으로 내외의 구분이 없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수납공간의 방 향이 안과 밖 모두에서 배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부와 내 부의 특성상 수납해야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수납 아이템을 고 려하여 배치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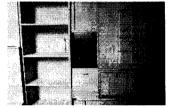




<그림 4> 외부와 내부의 수납형태

그 외에도 외부의 장식적 요소로서 필로티 기둥을 이용하여 문과 책상 주변을 시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내부에서는 오 브제의 크기에서 벌어지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내는 등의 회 화적 기법을 적용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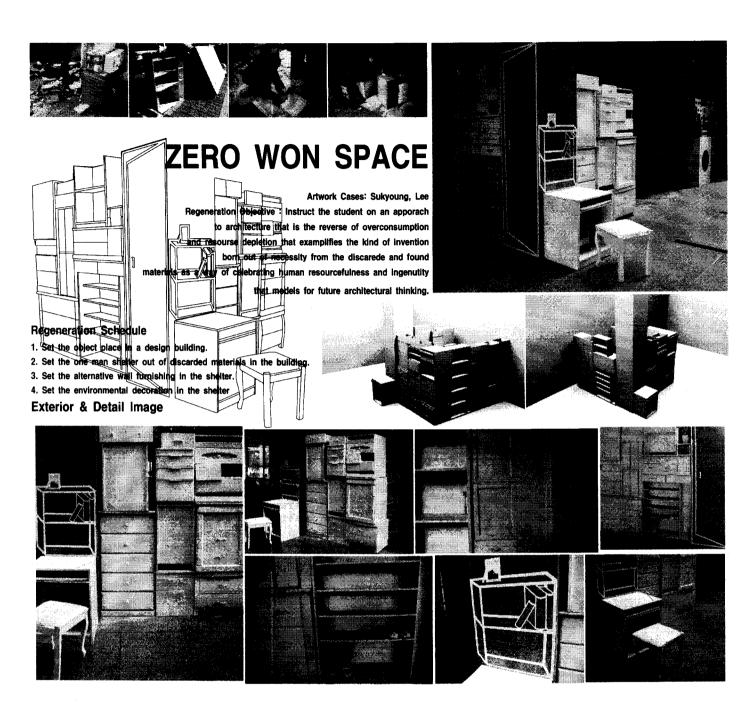




<그림 5> 회화적 기법의 설치와 오브제 크기에 따른 창문

3. 디자인 결과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재생'의 개념은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 으로 재탄생됨을 의미한다. 1인을 위한 정주공간의 형태인 'Zero Won Space' 디자인을 목표한 본 프로젝트는 '새로운 것' 이 곧 '가치있는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 가운데, 버려진 오브제 를 재활용하여 설치공간을 전시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한 공간디자인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 다.



Interior Space Image

